

2010 물류정책② - 지방자치단체편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 위한 新 항만개발 두드러져

올해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물류정책 핵심이 녹색물류와 택배산업 신설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신항만을 핵심으로 한 물류 및 항만개발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항만개발을 통한 배후단지 조성 등 타 산업 유치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도

경기도는 국내외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도권 핵심물류 배후지로서의 위상과 대북물류 거점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2010 경기도 물류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10 경기도 물류시행계획은 '기업하기 좋은 물류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점물류시설의 확충'과 '물류산업 정보화·표준화' 및 '물류수송 교통인프라 건설'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도로와 철도 연계한 광역거점 물류시설 확충

한계용량에 도달한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시설을 확장(381천㎡→703천㎡)하고, 수도권 북부지역 및 남북교역을 대비해 수도권북부(파주) 물류기지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시화 확산에 따른 물동량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복합물류기지 건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해안 중추 평택항 육성과 아라뱃길 경인항 조성

평택항의 배후단지 1단계(1,429천㎡)를 오는 5월까지 차질 없이 개발하고, 평택항 포트 세일즈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함은 물론 물동량 창출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륙육로 수송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아라뱃길 경인항 배후 물류단지과 터미널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거점의 물류·유통시설 확충

도내 물류시설의 거점화와 집적화를 위해 2012년까지 물류단지 8개소(4,450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원, 성남, 용인)를 통해 경기도 농산물 취급 확대에 앞장서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신규건설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등 물류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시설 효율적 운용 위해 정보화·표준화 추진

도내 창고업체의 정보관리와 물류 DB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표준화시설 모델을 도입하여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 보급할 계획이다.

화물차 운전자 복지개선과 물류관련 정책적 지원 사업

도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물차 휴게소의 조기 건

설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차 수요가 많은 평택항 배후부지 내에 화물차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의 개발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재 시행중인 물류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구온난화 방지 위한 친환경 녹색물류수송체계 개선

친환경 첨단물류계획 기준을 검토, 물류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도입하여 녹색물류 구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안전운전 습관을 위한 에코드라이브 운전기준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도내 산재된 물류창고 등 소규모 물류시설의 집산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물류유통시설 용지를 공급하여 수도권 내 소규모 물류시설의 집산화·집적화를 통해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위해 간선도로 및 철도망 구축

국지도 12개 사업, 광역도로 13개 사업, 지방도 확포장 56개소 등 물류애로 도로구간 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친환경 물류수송을 위해 중앙선 등 10개의 일반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수송 교통인프라 확충에 지속 투자할 예정이다.

■ 인천시

인천시는 '사람, 정보, 상품이 모이는 글로벌 복합물류 도시건설'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의 편리성 증대와 교통인프라 확충을 도모함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항만배후도로 확충 등 중점 정비

물류수송을 위한 항만배후도로 확충을 위해 남항준설투토기장 주변에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고, 북항고가차도와 용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등을 통해 인천항 항만이 용 효율을 증진할 계획이다.

물류활성화 지원 및 마케팅 전개

인천항 클린포트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물류정보 DB 구축과 인천물류발전 연구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항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북항, 남항, 인천 신항을 건설하고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을 통해 물류수송체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2010 항공물류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중국 동부지역, 아시아 극동지역, 일본에 근접한 동북아 요충지로, 남해안에 대한 발전축이 가시화되면 교통과 물류, 관광을 포함하는 경제권이 형성돼 아시아·한태평양 시대의 경제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남에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본격적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남은 동북아시아를 맞아 남해안을 선도할 로하스 종합교통·항만·물류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방화시대를 대비해 항만관리 역량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물류·항만·유통체계 개선

물류공동화를 통해 영세 농수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매시장의 체질 개선, 산지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도내 농수산물 물류·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1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항만의 기능분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거점화 전략 실현을 위해 항만 및 부두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항만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마산항 개발에 따른 부두기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물류·항만·유통 인프라 조성

국가단위 물류거점 내륙화물기지(ICD)의 재정비 및 확충, 해상-항공과 해상-철도 복합수송체계의 재정비 등 물류네트워크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과 경쟁력 도모를 위해 도내 물류·유통시설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항만개발 및 항만배후지역의 조기 조성을 위해 진해신항(16,760천㎡)과 마산신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진해항 2부두(65,642평)는 농산물 전용부두로 특화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U-로지스틱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해 RFID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종합물류시

스텝 연구개발은 물론 지역물류·교통 통합 DB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개발의 기본방향 수립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부가 물류산업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에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관리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민간공동 포토세일즈단의 활성화와 항만홍보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항만 마케팅 전략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남 항만공사 설립과 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항만관리 및 운영 지자체와 경남물류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항만물류 전문 인력 확충 및 양성

물류전문인력의 확충과 양성을 위해 도내 항만과 인접한 대학·대학원 등에 항만물류학과 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물류 전문가 채용을 통해 항만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물류관련 R&D 사업의 확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부산은 올해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를 비전으로 해양·항만·물류 중심도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신항 및 배후단지 조성

2015년까지 670만㎡(북컨 170, 남컨 142, 옹동 358)의 부산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북컨 배후부지 140만㎡의 조성이 완료됐으며 물류기업 22개 업체가 유치됐다. 이와 함께 강서구 가락 IC~식만교(도계)에 해당하는 배후도로와 녹산역(부산신항)~삼랑진역에 해당하는 배후철도 또한 건설될 예정이다. 배후도로는 올해 안으로 지하차도 도로화장구간 보상 등의 사업이 준공되고, 배후철도는 목표공정의 94%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

'신항~을숙도대교~천마산터널~남항대교~연결도로~북항대교~북항'에 이르는 구간으로 지난해까지 남항대교와 을숙도대교 개통이 완료됐다. 올해는 북항대교의 주탑 및 케이블 설치와 영도연결도로의 실시설계를 완료함은 물론, 천마산터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낙동강 하구 강서지역 일원의 약 33㎢ 규모로, 광역산업단지(20㎢)와 복합물류단지(9㎢), 지식창조도시(4㎢)가 들어설 예정이다. 1단계는 자체개발, 2단계는 국가산단지정

지자체 2010년 주요 물류업무



개발로 진행되며, 올해 1단계 산업단지를 지정해 공사를 착공하고 2단계 시행방침을 결정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물류허브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항만·물류산업 인프라 확충

영도구에 종합물류경영기술 지원센터(3,306m²)와 국제선용품 유통센터(26,125m²)를 건립하고, 신항 남컨부두에

유류중계기지(63천m²)와 수리조선단지(645천m²)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와 계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 수산 물류거점 조성

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64,110m²)를 건립하고 김천항에 수산물유통가공단지(201

2010 물류정책② - 지방자치단체편

천m²)를, 영도대교~보수천 앞에 자갈치수 산관광단지(6만7천m²)를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수산물수출가공선화단지에서는 원료공급→제품생산→선적 등 가공수출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며, 올 하반기 실시 설계 및 매립공사 착공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수산물물류거점도시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미래를 창조하는 산업·물류·해양 중심지역'을 목표로, 국토 중앙에 입지한 이점을 살려 전국 어느 곳에서나 쉽게 연결되는 산업, 물류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해안권은 거점항만

및 항공물류기지 확충으로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특화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전 국토를 연계하는 물류, 유통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역 전진기지 구축 위한 항만개발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무역항(대산항, 보령신항, 장군신항, 장항항, 당진항)을 건설하고 3개 연안항(대전항, 비안항, 안흥항)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중 보령신항은 대북,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당진·대산항, 장군신항 등 배후지역에 산업단지 개발 및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할 예정이다.

항만은 수송·물류·정보망을 갖춘 제 3

세대형 종합물류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개발 촉진 및 물류 효율화 위한 철도망 확충

도내 전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3x3의 철도망을 구축해 지역 간 연계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전국적 광역고속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간의 산업철도망 구축을 위해 동서산업철도와 보령~조치원철도, 서남선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부선(천안-조치원-대전), 호남선(대전-목포), 장항선(천안-장항) 등 기존 철도의 복선화와 전철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효과적인 물류유통 위한 물류권역 설정

아산만권은 수도권 물류의 1차 완충기능 및 지역 내 물류거점 기능을 위해, 대전·청주권은 전국 내륙 물류거점 기능을 위해, 그리고 장항·군산권은 장·군항과 보령항 배후거점 및 지역 내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Tri-port 체계 구축 및 지역거점 물류시설 확충

국내외 지역 간 물류·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로 육상, 해양, 항공물류기지를 1개소씩 조성하여 상호 연계하는 Tri-port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천안, 아산, 당진, 공주 등에 유통단지를 건설해 권역별 거점지역의 물류를 종합 처리하고, 지역별 특산물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화 유통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거점지역별로 유통단지와 연계한 저장시설의 집산화·협업화를 추진하고 냉동, 냉장창고 등 고부가가치 저장시설을 시군별로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물류비 절감 및 효율적 물류시설 이용 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신규 유통단지 내에 유통정보화(POS)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출흐름과 고객의 구매활동 등을 분석함으로써 판매촉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 관련기관과 업체들에게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정보흐름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양시

광양시는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을 목표로, 이를 위해 국제 중계무역항 건설을 통한 물류, 유통산업 진흥이라는 대표 시책을 세웠다. 특히 광양항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국제물류, 유통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을 중심으로 부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개발

지난 해 남해안 선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부문에 걸쳐 초 광역개발권 발전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부문은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현재 8,892천m²), 이공계 선도대학 육성, 동북아 국제교류 거점항 조성, 동서 화합도시 조성이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300만 TEU 처리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U-IT연구소의 기술 접목과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 유치에 대해 물류인재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배후단지 및 수송망 확충

동측배후단지의 활성화와 더불어 서측 배후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광양항 배후 수송망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광양~전주 간 고속도로는 올해 안으로, 광양~목포간은 2012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선 복선 전철화는 내년, 경전선 복선화는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선도로로는 서측전용도로와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를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화물 창출형 항만여건 조성

광양항만공사(PA)가 올해 상반기에 설립될 예정이며,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재가공·조립 수출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우수항만 100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맺고(광양항~일본 간, 광양항~북중국 간 카페리 운행 및 신규항로 개설) 남중권 원·부차재 수급 고도화 사업 추진과 더불어 워터프린트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나라 기자 35shine@klnews.co.kr



한국OFA
www.kofas.co.kr





최고를 위한 끊임없는 질주!



상업

국외에 입지해 유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관한 컨설팅



설계

물류의 경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설계팀의 합리적 설계



계약

고객의 승인을 설계에 따라 합리적인 계약체결



생산

완전자동화 생산시스템에 의한 고정밀도 구축형 생산



A/S

장기적 서비스는 물론 우수품질, 저렴한 A/S 제공



검사

완성된 모든 제품은 철저한 양방향 검사 실시



설치

숙련된 엔지니어링에 의한 신속, 완벽한 조립

고객감동을 위한 한국 OFA의 끊임없는 질주 -

세계 최고의 물류시스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을 해온 한국 OFA-

최적의 보관설비와 새로운 가치형성을 위한 완벽한 물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추구한 한국 OFA가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장시스템

- 전동모빌랙 시스템 / 파렛트랙 / 파렛트 슬라이딩랙 / 전동식 중량모빌랙 / 슬라이딩랙
- 전동모빌랙 자동창고 / High Stack Rack / Push Back Sliding RACK / Mold Rack / 핸들식 중량모빌랙
- 자동창고시스템(AS/RS) / Drive in Rack / 중량보관고 / 적층식랙

운반시스템

- Conveyor System(Chain, Roller, Belt)
- AGV / RGV
- Sorter System



2006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12-9 석중빌딩 2층 TEL:02-402-9051 FAX:02-402-9053
구미 공장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 2동 293-14 TEL:054-465-1606 FAX:054-465-1607